2018년 시행 고3 6월 모평 국어 해설

본 해설은 현직 선생님들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손수 만드신 재창작물입니다.
따라서 본 해설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 1 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1	②	2	②	3	⑤	4	⑤	5	①
6	⑤	7	④	8	⑤	9	②	10	③
11	④	12	④	13	①	14	①	15	⑤
16	②	17	④	18	③	19	③	20	②
21	⑤	22	③	23	②	24	①	25	③
26	⑤	27	①	28	③	29	②	30	⑤
31	④	32	④	33	⑤	34	②	35	③
36	①	37	④	38	②	39	③	40	③
41	①	42	④	43	①	44	⑤	45	②

[1~3] 화법

[지문 분석]

안녕하세요. 야생조류보호협회의 ○○○(강연자 소개) 입니다.

여러분, 혹시 걷다가 유리문에 부딪친 적 있나요? (대답을 듣고) 네(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 몇몇 학생들이 경험했군요. 꽤 아팠죠?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빠른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치면 어떻게 될까요? □□ 연구소에서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유리창 충돌이 야생 조류가 사고로 죽는 원인 중 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야생 조류는 왜 유리창에 잘 부딪치는 걸까요? (자료 제시)(시각적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움, 사람과 야생 조류의 시야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임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함.)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넓어서 전방에 있는 사물을 잘 인식하지만, 대부분의 야생 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있어서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좁습니다.(사람과 야생 조류의 차이점, 사람과 조류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다른 이유) 이 때문에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해서(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이유)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치지 않도록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 연구소의 안내서에는 그물망 설치나 줄 늘어뜨리기(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줄이기 위한 방법) 등의 방법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중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는 것(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막기 위한 방법)은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죠?(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하며 청중의 대답을 유도함.)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군요. (자료 제시)(시각적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움. 사람과 야생 조류의 색 인식 영역이 다름을 보여 주는 자료임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함.)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야생 조류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보는 색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자외선 반사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이면 야생 조류가 테이프에서 반사된 자외선을 보고 그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테이프 부착 전후를 비교한 결과, (자료 제시)(테이프 부착 전후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비교한 실험 결과) 보시는 것처럼 부착 후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이 크게 줄었습니다.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안내한 방법 중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청중의 행동 유도)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지문 확인]

- 갈래: 강연
- 주제: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줄이는 방법
- 특징
  -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움.
  - 질문을 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함.

1. <답> ②
<정답률> 91%
<정답 풀이>
2문단의 '여러분, 혹시 걷다가 유리문에 부딪친 적 있나요? (대답을 듣고) 네, 몇몇 학생들이 경험했군요.'와 4문단의 '과학 시간에 배웠죠?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군요.'를 통해 강연자가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강연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하는 질문은 나타나 있지만, 청중의 배경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강연의 앞부분에서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강연 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나타나 있지 않다.
<TIP>
이 문제는 가장 정답률이 높게 나온 문제로 말하기 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2. <답> ②
<정답률> 89%
<정답 풀이>
'비둘기도 야생 조류에 해당할까?'는 학생이 제기한 의문이지만, 이는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제기한 의문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며칠 전 우리 집 유리창에도 비둘기가 부딪쳐서 놀랐어.'는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린 것이다.
③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는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좋은 방법)하고 있는 것이다.
④ '우리 집에도 부착하면 새가 부딪치지 않겠지.'는 강연자가 제시한 방법(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⑤ '야생 조류가 부딪치지 않게 유리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는 강연자의 제안(제가 안내한 방법 중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에 따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다.
<TIP>
이 문제는 듣기 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3. <답> ⑤
<정답률> 83%
<정답 풀이>
<자료 1>은 사람과 야생 조류의 시야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 ㉠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자료 2>는 사람과 야생 조류의 색 인식 영역을 보여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 ㉡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은 ㉠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지만,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은 이 강연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으며, <자료 1>과도 관련 없다.
② <자료 1>이 사람과 야생 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름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이 아닌 ㉠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③ <자료 1>은 자외선 반사 테이프의 부착 효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다.
④ 야생 조류가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에는 ㉡이 아닌 ㉠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TIP>
이 문제는 배점이 3점이지만 쉬운 문제로 매체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전 지문의 '(자료 제시)'를 읽으면서 각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은 자료인지 추측하며 읽었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4~7]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가)

[모둠 과제 안내장]
• 과제 : 다른 지역의 학생들(예상 독자)에게 우리 도시를 소개하는 글쓰기.
• 조건 :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글의 내용)를 포함할 것.

학생1: 자,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 논의해 보자. 나는 분식으로 유명한 맛나거리(학생1이 생각한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에 대해 쓰고 싶은데, 어때?
학생2: 요즘 음식으로 유명한 △△ 거리, □□ 길처럼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학생2는 맛나거리가 특색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함.)
학생3: 그럼 맛나거리 대신에 반딧불이 축제(학생3이 생각한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행사)를 소개하자. 우리 도시가 청정하다(우리 도시의 특색)는 점을 드러낼 수 있잖아.
학생1: 그게 좋겠다.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 조사해 올게.
학생2: 응, 알겠어.(학생1과 학생2 모두 학생3의 의견에 동의함.) 그리고 사랑미술관(학생2가 생각한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도 소개하자. 거기서 운영하는 유화 그리기 수업(학생2가 생각하는 우리 도시의 특색)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거라 특색 있어 보이던데.
학생1: 그 수업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학생3: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학생1과 학생3은 소개하는 글의 예상 독자를 고려함.)
학생2: 알겠어.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점을 고려해서 사랑 미술관에 대해 조사해 올게.
학생3: 우리 도시의 특색 중에 전통이 드러나는 산할머니 제당과 거기서 열리는 문화제(학생3이 생각하는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와 행사)도 소개하자.
학생1: 좋은 생각이야. 그 내용에 산할머니 전설과 사랑시 명칭의 유래도 추가하는 건 어떨까?(학생3의 의견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제안을 함.)
학생3: 알겠어. 그 내용도 조사해 올게.
학생2: 참, 바람맞이 언덕이 사진 찍기에 좋다던데. 우리 도시의 특색은 아니지만 제당 근처니까 바람맞이 언덕도 소개하자.(글의 내용에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만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님.)
학생3: 그리고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도 안내하면 좋겠어.
학생1, 2: 좋아.
학생3: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학생2: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
학생1: 독자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는 건 어때?
학생3: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반딧불이 그림에 말풍선을 달고 거기에 문구를 넣자.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문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문구에 포함하면 좋겠어.
학생1: 그럼 문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학생2: 대조의 표현 방식(문구에 사용되어야 할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건 어때?
학생1, 3: 응, 좋아.
학생1: 그럼 다음 주에는 함께 글을 써 보자.

[지문 확인] (가)

• 갈래: 토의
• 주제: 우리 도시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한 논의
• 특징: 예상 독자를 고려해 글의 내용을 구성함.

[지문 분석] (나)

사랑시의 이야기는 사랑시 터미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산할머니 제당'에서 시작한다. 이 제당은 사랑시의 전통적 특색을 드러내는 곳으로 사랑시 명칭의 유래와도 관련된 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이 아들 네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네 아들[四郞(사랑)]은 평생 효를 다해 어머니를 모셨고, 훗날 그 여인은 하늘로 올라가 마을을 지켜 주는 산할머니신이 되었다고 한다.(산할머니 전설과 사랑시 명칭의 유래를 추가하자는 학생1의 의견이 반영됨.) 그래서 예부터 우리 도시는 효를 으뜸으로 여기며, 산할머니신을 섬기는 전통(문화제 개최의 취지)을 이어받

아 이곳에서 해 마다 문화제를 열고 있다. 제당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정자를 지나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바람맞이 언덕을 소개하자는 학생2의 의견이 반영됨.)에 도착한다.(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쓰고 있음.) 언덕 중앙에는 사랑시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노을이 질 무렵 바람맞이 언덕과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바람맞이 언덕에서 오른편으로 난 길을 따라 20여 분 걷다 보면 '사랑미술관'(사랑미술관을 소개하자는 학생2의 의견이 반영됨.)이 나온다.(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쓰고 있음.) 이곳은 우리 도시로 이주한 예술가들이 사랑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청정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화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신들의 작품을 해설해 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소개하자는 학생3의 의견이 반영됨.)

사랑미술관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숲이 우거진 공간이 나오는데,(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쓰고 있음.) 이곳에서는 매년 여름에 '반딧불이 축제'(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는 학생3의 의견이 반영됨.)가 열린다. 반딧불이 축제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사는 반딧불이를 직접 보며 아름다운 반딧불을 즐길 수 있다. 여름날 사랑미술관에 들렀다가, 해가 지면 반딧불이 축제장에 가 보는 것도 좋다.

바쁜 학교생활(예상 독자가 학생임을 알 수 있음.)로 인한 긴장을 풀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이 돋보이는 도시, 전통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사랑시의 특색)인 사랑시의 이야기를 따라 길을 떠나 보자.

[지문 확인] (나)

- 갈래: 소개하는 글(의 초고)
- 주제: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이 돋보이고 전통과 예술이 공존하는 사랑시
- 특징
  - 청유형 문장으로 독자의 행동을 유도함.
  - 이동 경로가 드러남.

4. <답> ⑤
<정답률> 72%
<정답 풀이>
'학생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은 언급한 것은 '학생2'가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이다. '학생1'은 '학생2'가 제시한 대안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학생2가 '요즘 음식으로 유명한 △△거리, □□길처럼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라고 말한 것은 맛나거리가 △△거리, □□길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② 학생3은 맛나거리가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2의 발언을 고려하여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행사로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③ 학생2는 사랑미술관을 소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를 포함할 것'이라는 모둠 과제 안내장에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제안한 것이다.
④ 학생1은 학생2가 언급한 유화 그리기 수업에 대해 '그 수업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글의 독자가 다른 지역의 학생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판단을 하여 학생2가 제시한 대안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TIP>
이 문제는 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A]를 읽으면서 어떤 학생이 무엇을 제안하였고, 제안에 대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5. <답> ①
<정답률> 88%
<정답 풀이>
㉠ 학생2는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다며 문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 학생1은 문제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학생2에게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자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학생2의 의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과 ㉡ 모두 물음의 형식을 사용했지만 ㉠은 상대의 의견을 묻는 물음이고 ㉡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물음이다.
④ ㉡은 학생2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⑤ ㉠과 ㉡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TIP>
이 문제는 토의의 적절성과 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과 ㉡ 모두 의문문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6. <답> ⑤
<정답률> 82%
<정답 풀이>
[B]에서는 '산할머니 제당과 거기서 열리는 문화제', '산할머니 전설과 사랑시 명칭의 유래', '바람맞이 언덕과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을 글의 내용에 싣자고 말하고 있다. [C]의 '제당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정자를 지나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를 통해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자는 학생3의 의견을 반영해 정자를 거쳐서 가는 경로를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C]에서 산할머니 제당에서 열리는 문화제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당과 문화제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② [C]에서 산할머니 전설에 대해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할머니의 일화가 담긴 은행나무에 대한 소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C]에서 사랑시 명칭의 유래에 대해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랑시의 명칭이 변화되어 온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B]와 [C] 모두 바람맞이 언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바람맞이 언덕이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 주는 곳이라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C]에서 해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바람맞이 언덕과 무관하다.
<TIP>
이 문제는 내용 생성 전략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B]에서 논의한 사항이 [C]에서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었다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7. <답> ④
<정답률> 74%
<정답 풀이>
(가)에 따르면 ⓐ에는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을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한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④의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은 '사랑시의 전통의 특색'에 해당하고,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는 '사랑시의 예술의 특색', '청정한 사랑시'는 '사랑시의 자연의 특색'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또한 '어두운 여름밤'과 '밝은 반딧불'에서 대조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는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사랑시의 예술 분야의 특색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과 대조의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대조의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사랑시의 전통 특색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TIP>
이 문제는 글쓰기 계획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가)의 학생3과 학생2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에 들어가야 할 문구의 조건이 5개임을 파악한 후, 선지①~⑤에 5개의 조건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8~10] 작문
[지문 분석]

[초고 작성을 위한 학생의 메모]
○글의 목적: 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려고 함.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학생들 사이에 사극에 대한 논란이 있음.
-사극의 본질은 주제 의식에 있음.
-시청자들이 사극에 흥미를 갖는 원인
-사극은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사극의 유형

[글의 초고]
드라마 '○○'이 인기를 끌면서 사극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역사와는 다르지만 재미있었다는 반응과 아무리 드라마이지만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라서 보기에 불편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사극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글을 쓰게 된 계기)
사극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든 허구적 창작물이다.(사극의 개념, 정의) 따라서 사극의 본질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구현되는 주제의식에 있다. 사극에서는 허구를 통해 가치 있는 의미를 담고 그것이 얼마나 시청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극에서는 실존 인물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거나, 실재하지 않았던 인물을 등장(시청자들이 사극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시켜 극적 긴장감을 더욱 높인다. 이러한 점은 시청자들이 사극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어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역사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져 과거의 지식으로만 존재하던 역사를 현재에서 살아 숨 쉬게 만들 수 있다.(사극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한편 일각에서는 시청자들이 사극에서 다뤄지는 상황을 실제 역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사극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하지만 다큐멘터리와 달리 사극은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다. 또한 사극의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사극의 내용이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사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
우리는 실제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며 지혜를 얻는다. 한편 사극을 통해서는 감동과 즐거움을 얻는다.(사극을 통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님.) 이처럼 실제 역사와 사극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사극과 역사의 가치를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음.)

[초고 작성 후 수행한 자기 점검]
○점검 내용: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 수정해야 글의 목적(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더 잘 드러날 것 같아.
○고쳐 쓴 마지막 문단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제 역사를 현실로 소환하면서, 끊임없이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로 인해 시간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극에서 재창조된 인물에 공감하거나 그들의 삶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과 경험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으려면 사극을 실제 역사 그 자체의 재현이 아닌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 한다.(자신이 사극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힘.)

[지문 확인]

• 갈래: 주장하는 글
• 주제: 사극의 본질과 역할
• 특징
-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밝힘.
- 정의를 통해 대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움.

8. <답> ⑤
<정답률> 88%
<정답 풀이>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사극의 유형은 글의 초고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초고 1문단에서 학생들 사이에 사극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글의 초고 2문단의 '사극의 본질은 상상력으로 바탕으로 만들

어진 이야기를 통해 구현되는 주제 의식에 있다.'를 통해 사극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글의 초고 3문단의 '사극에서는 실존 인물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거나 ~ 시청자들이 사극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어'를 통해 시청자들이 사극에 흥미를 갖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글의 초고 3문단의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를 통해 사극은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는 것을 언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7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지문을 다 읽은 후에 8번 발문을 보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의 반영여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을 때 ㉠~㉤의 반영여부를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9. <답> ②
<정답률> 80%
<정답 풀이>
이 글의 목적은 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글의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는 사극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 역사와 사극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실제 역사와 사극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 문단에서 실제 역사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사극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는 방향으로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②의 내용이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초고 마지막 문단에서 사극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글의 초고 마지막 문단이 실제 역사의 장점을 위주로 한 내용은 아니다. 또한 사극이 실제 역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다.
④ 글쓴이는 사극의 본질을 실제 역사를 온전히 수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구현되는 주제 의식에 있다고 보고 있다.
⑤ 글의 초고 마지막 문단에는 실제 역사 반영이 사극에서 중요하다고 제시되어 있지 않다.
<TIP>
이 문제는 적절하게 고쳐쓰기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글의 목적과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야 한다.

10. <답> ③
<정답률> 86%
<정답 풀이>
[A]의 관점은 '사극에서는 허구를 통해 가치 있는 의미를 담고 그것이 얼마나 시청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기>의 관점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상력과 역사적 사실을 균형 있게 언급한 ③이 <보기>의 관점에서 [A]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사극이 허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② <보기>는 역사적 사실과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가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가 역사적 사실보다 더 가치 있다는 입장이 아니다.
④ <보기>에는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요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보기>는 허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 의식이 아닌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⑤ <보기>는 역사적 사실과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가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구적 내용의 재미보다 역사적 사건과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보기>의 관점이 아니다.
<TIP>
이 문제는 적절하게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A]와 <보기>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대상에 대한 [A]와 <보기>의 관점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11~15] 문법
11~12번 문법 이론: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명사·부사 파생 접미사, 명사형 전성 어미

1. 접미사의 특징

접미사는 접두사와 달리,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품사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

2.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① 명사로 파생
㉠ 어근의 뜻만 제한

유형	예
명 사 + 접미사 → 명 사	사람<u>들</u>, 너<u>희</u>, 도둑<u>질</u>, 육손<u>이</u>, 일<u>꾼</u>, 털<u>보</u>, 잠<u>꾸러기</u>, 가난<u>뱅이</u>, 선생<u>님</u>, 마음<u>씨</u>, 잎<u>사귀</u>, 이파리(잎+아리), 모가지(목+<u>아지</u>), 값<u>어치</u>, 모양<u>새</u>, 눈<u>치</u>

㉡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로 파생

유형	예
용언의 어간 + 접미사 → 명사	꿈(꾸+<u>ㅁ</u>), 놀<u>이</u>, 노래(놀+<u>애</u>), 덮<u>개</u>, 읽<u>기</u>, 열<u>매</u>, 나머지(남+<u>어지</u>), 검<u>정</u>, 거멍(검−+−<u>엉</u>), 무덤(묻−+−<u>엄</u>), 마중(맞−+−<u>웅</u>)

(참고) •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접미사	예	접미사	예
[−(으)ㅁ]	꿈, 잠, 춤,	[−이]	갈이, 놀이,

	울음, 걸음……		높이……
[-애]	노래, 나래……	[-개]	날개, 덮개, 베개……
[-기]	쓰기, 읽기……	[-매]	열매……
[-어지]	나머지……	[-다리]	늙다리……
[-엉]	거멍……	[-정]	검정……
-[-웅]	마중……		

② 동사로 파생

㉠ 어근의 뜻만 제한

유형	예
동 사 + 접미사 → 동 사	깨뜨리다, 떨치다, 놓치다, 먹이다, 잡히다, 벌리다……

㉡ 품사가 바뀜

유형	예
명 사 → 동 사	일하다, 눈물지다, 위반하다……
형용사 → 동 사	밝히다, 높이다, 낮추다, 밝히다, 눅이다, 높이다, 늦추다, 넓히다……
부 사 → 동 사	덜렁거리다, 울렁거리다, 꿈틀거리다, 철렁거리다……

㉢ 문장의 구조와 의미가 바뀜

유형	예
동 사 → 사동사	먹이다, 입히다, 울리다, 웃기다, 달구다, 맞추다……
동 사 → 피동사	보이다, 막히다, 팔리다……

③ 형용사로 파생

㉠ 어근의 뜻만 제한

유형	예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형용사	기다랗다, 깊숙하다, 높직하다, 달콤하다, 차갑다, 까맣다(깜+앟+다), 높다랗다, 동그랗다(동글+앟+다)……

㉡ 품사가 바뀜

유형	예
명 사 + 접미사 → 형용사	대견스럽다, 학생답다, 슬기롭다, 가난하다, 값지다, 기름지다, 자연스럽다……
동사 어근 + 접미사 → 형용사	미덥다(믿+업+다), 아깝다(아끼+압+다), 아프다(앓+브+다), 그립다(그리+ㅂ+다)……
관형사 +	새롭다
접미사 → 형용사	
부 사 + 접미사 → 형용사	차근차근하다, 보드랍다(보들+압다)

(참고) • 접미사'-답-','-롭-','-스럽-'의 의미

유형	의미	예
[-답-]	'어떤 자격이 있다'를 의미하는데 대개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긍정적 의미가 내포된다.	학생답다. 교수답다……
[-롭-]	추상성을 띤 모음으로 된 말과 결합된다. 구체적 대상을 지시하거나 자음으로 된 말에는 쓰이지 않는다.	향기롭다, 슬기롭다……
[-스럽-]	어떤 성격에 근접했음을 표시한다.	어른스럽다……

④ 부사로 파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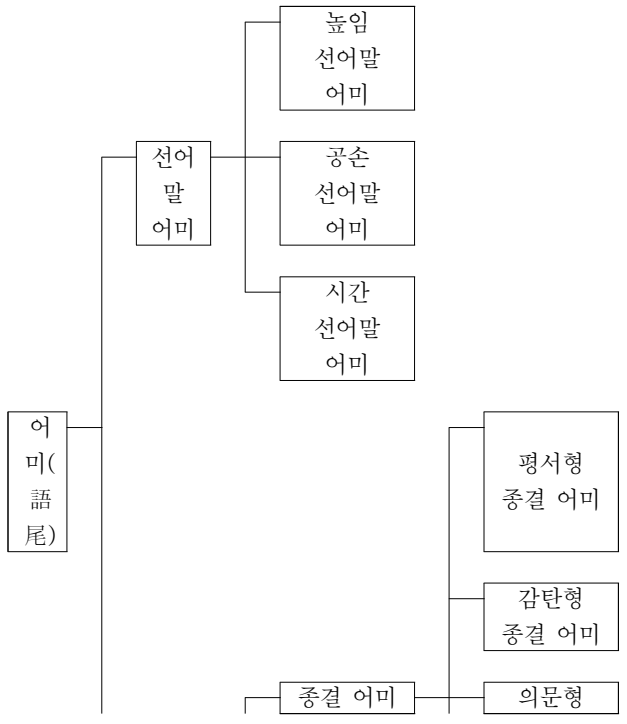
유형	예
동사 어근 + 접미사 → 부 사	마주(맞+우), 비로소(비롯+오), 도로(돌+오), 차마(참+아), 너무(넘+우)……
형용사 어근 + 접미사→ 부 사	많이, 길이, 조용히, 급히, 없이, 자주(잦+우), 깨끗이, 높이, 달리(다르+이), 건강히……
명 사 + 접미사 → 부 사	마음껏, 나날이, 끝내, 진실로, 분명히, 정성껏, 힘껏, 정말로
부사 + 접미사 → 부 사	더욱이, 일찍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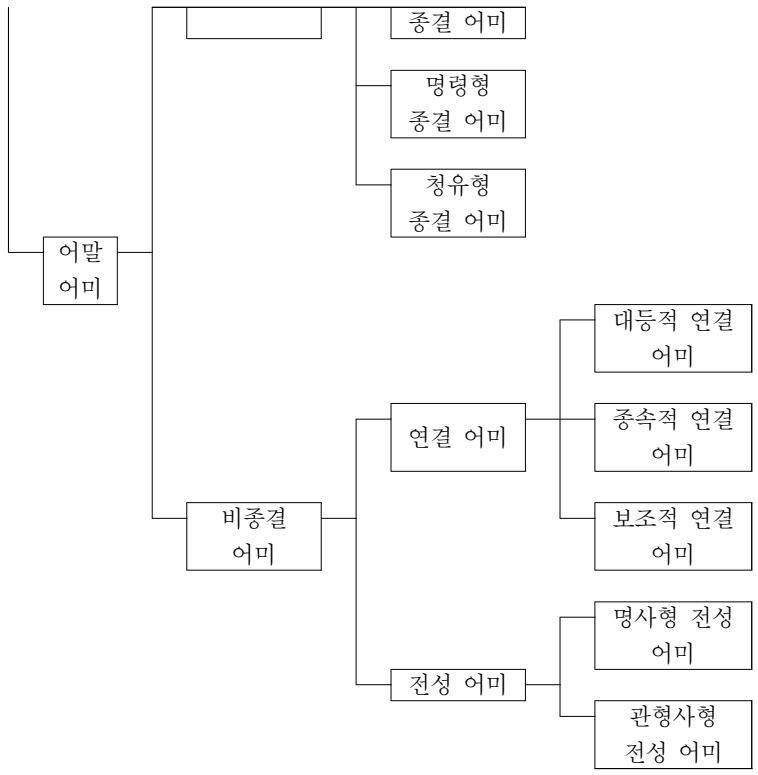
3. 어미

(1) 어미(語尾)의 정의

어간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

(2) 어미의 갈래





(참고)

• 어말 어미 : 단어의 끝에 오는, 단어를 끝맺는 형태소.

• 선어말 어미 : 그 자체만으로는 단어를 끝맺을 수 없고, 반드시 어말어미를 필요로 하는 형태소.

(3) 어말 어미의 갈래

갈래				용례	예
종결 어미	평서형			-다, -네, -오, -ㅂ니다……	• 철수가 학교에 간다.
	감탄형			-(는)구나, -군, -로구나……	• 철수가 학교에 가는구나!
	의문형			-니, -느냐, -는가……	• 철수가 학교에 가니?
	명령형			-어라, -아라	• 철수야, 학교에 가거라.
	청유형			-자, -세, -ㅂ시다……	• 철수야, 학교에 가자.
비종결 어미	연결 어미	대등적		-고, -며, -자, -면서……	• 철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빵을 먹는다.
		종속적		-면, -니, -나, -려고……	• 내일 날씨가 좋으면 정말 좋겠다.
		보조적		-아/-어, -지, -게, -고	• 나도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다.
	전성 어미	명사형	제1 명사형	-(으)ㅁ	• 철수는 학생 신분임이 밝혀졌다.
			제2 명사형	-기	• 나는 영어 받아쓰기를 잘 하면 좋겠다.
		관형사형	현재	-는	• 그것은 제가 먹는 밥입니다.
			과거	-(으)ㄴ	• 그것은 제가 먹은 밥입니다.
			미래	-(으)ㄹ	• 그것은 제가 먹을 밥입니다.
			회상	-던	• 그것은 제가 먹던 밥입니다.

4.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와 파생 접미사

어근 + -옴, -음, -ㅁ(파생 접미사)	살- + -옴 → 사름 얼- + -음 → 얼음 그리- + -ㅁ → 그림
어간+ -옴, -움, -ㅁ(명사형 어미)	글히- + -옴 + -이 → 글히요미(구별함이)
일부 파생 명사를 만들 때는 '-옴, -음'을 쓰지 않고 명사형 어미인 '-옴, -움'을 쓰기도 함.	웃- + -움 → 우숨 ('ㅅ' 불규칙 동사) 울- + -음 → 우룸

11. <답> ④

<정답률> 78%

<정답 풀이>

4문단의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ᄋᆡ/의'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에 각각 대응한다.'를 통해 '노ᄑᆡ'는 '높-'에 명사 파생 접미사 '-ᄋᆡ'가 결합한 파생 명사이고, '노피'는 '높-'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 부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의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ᄋᆞ/으)ㅁ'과 명사형 전성 어미 '-옴/움''을 통해 '여름'은 '열-'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이고, '여룸'은 '열-'에 명사형 전성 어미 '-움'이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의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ᄋᆞ/으)ㅁ'과 명사형 전성 어미 '-옴/움''을 통해 '거름'은 '걷-'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파생 명사이고, '거룸'은 '걷-'에 명사형 전성 어미 '-움'이 결합한 동사의 명사형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걷-'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 어간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ᄋᆞ)ㅁ'과 '-옴'이 각각 결합한다.'를 통해 '높-'에는 '-옴'이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의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 하나여서 모음조화에 상관없이 '-이'가 결합한다.'를 통해 '곧다', '굳다'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중세 국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파생 부사', '부사 파생 접미사', '명사 파생 접미사', '명사형 전성 어미' 등 헷갈리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 해당 단어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며 지문과 선지를 비교해야 한다.

12. <답> ④

<정답률> 81%

<정답 풀이>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에서 '도움'과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에서 '믿음'은 모두 해당 절에서 서술어로 쓰인다. 또한 '믿음'은 '온전히'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동사의 명사형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ᄋᆞᆰ'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서술어로 쓰이기 때문에 동사의 명사형이지만, '슬픔'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서술어로 쓰이지 않

기 때문에 명사이다.
② '볶음'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서술어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명사이며, '기쁨'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서술어로 쓰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명사형이다.
③ '묶음'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서술어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명사이며, '춤'은 서술어로 쓰이기 때문에 동사의 명사형이다.
⑤ '울음'은 서술어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명사이며, '웃음'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서술어로 쓰이기 때문에 동사의 명사형이다.
<TIP>
이 문제는 파생 접미사와 전성 어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A]에서 명사는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며, 동사나 형용사의 명사형은 서술어로 쓰이며 부사어의 수식어를 받는다는 것을 파악하여 선지의 밑줄 친 부분이 서술어로 쓰이는지의 여부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13번 문법 이론: 사잇소리 현상

(1) 사잇소리 현상의 정의

> 사잇소리 현상은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앞 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이다.
> ['모음, ㄴ, ㄹ, ㅁ, ㅇ' + 'ㅂ, ㄷ, ㄱ, ㅈ' ⇒ '모음, ㄴ, ㄹ, ㅁ, ㅇ' + 'ㅃ, ㄸ, ㄲ, ㅉ']

(2) 사잇소리 현상의 여러 가지 용법
① 사잇소리 현상의 정서법 :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나룻배, 잇몸, 나뭇잎, 촛불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콧병, 전셋집, 제삿날
두 음절로 된 한자 합성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② 사잇소리 현상의 예외적 용법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고래기름, 기와집, 콩밥[콩밥], 밤송이, 은돈, 말방울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경우	김밥[김밥, 김빱], 물거품[물거품, 물꺼품]

③ 사잇소리 현상이 있고 없음에 따라 의미가 분화하는 경우

> 나무집 [나무집] - 나무로 만든 집.
> [나무찝] - 나무를 파는 집.
> 고기배 [고기배] - 고기의 배.
> [고기빼] - 고기를 잡는 배.

④ 사잇소리 현상 때의 음운 첨가 :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의 말이 'ㅁ, ㄴ'으로 시작되면 'ㄴ'이 덧생긴다.

> 이+몸(잇몸)[인몸], 코+날(콧날)[콘날],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깻묵, 냇물, 빗물, 곗날, 제삿날, 훗날, 툇마루, 양칫물

⑤ 사잇소리 현상 때의 음운 첨가 : 뒤의 말이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될 때 'ㄴ'이 하나 혹은 둘이 덧나는 경우

> 논일[논닐], 물약[물냑→물략], 아래+이(아랫니)[아랜니]
> 뒷윷, 두렛일, 댓잎, 베갯잇,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⑥ 한자어에서의 사잇소리 현상

> 物價(물가)[물까], 庫間(곳간)[고깐], 貰房(셋방)[세빵], 焦點(초점)[초쩜], 外科(외과)[외꽈], 齒科(치과)[치꽈]

(참고) •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자어

> 방법(方法), 효과(效果), 고가(高架), 간단(簡單), 교과서(敎科書)

(3) 사잇소리 현상과 된소리 되기

사잇소리 현상	된소리 되기
울림소리 다음에서 나타나는 현상	안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만날 때 뒤의 안울림소리가 된소리로 되는 현상
국어에서 필연적인 현상은 아니다.(수의적 현상이다.)	국어에서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합성어뿐만 아니라, 어간과 어미 사이, 체언과 조사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13. <답> ①
<정답률> 52%
<정답 풀이>
'도매가격'과 '도맷값'은 모두 합성 명사에 해당한다(ⓐ). '도매가격'과 '도맷값'의 사이시옷 표기는 합성 명사여부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매가격'은 '한자어+한자어', '도맷값'은 '한자어+고유어'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의 1가지 조건은 ⓐ가 아닌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전세방'과 '아랫방'은 모두 합성 명사이며(ⓐ),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또한 [빵]에서 알 수 있듯이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하지만 '전세방'은 '한자어+한자어'이고, '아랫방'은 '고유어+한자어'이기 때문에 ⓑ가 ㉡의 1가지 조건에 해당한다.
③ '버섯국'과 '조갯국'은 모두 합성 명사이며(ⓐ), '고유어+고유

어'이다(ⓑ). 또한 [꾹]에서 알 수 있듯이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하지만 '조갯국'은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만 '버섯국'은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 ㉣의 1가지 조건에 해당한다.

④ '인사말'과 '존댓말'은 모두 합성 명사이며(ⓐ), '한자어+고유어'이다(ⓑ). 또한 두 단어 모두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하지만 '존댓말'은 앞말 끝소리에 'ㄴ'소리가 덧나지만 '인사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 ㉢의 1가지 조건에 해당한다.

⑤ '나무껍질'과 '나뭇가지'는 모두 합성 명사이며(ⓐ), '고유어+고유어'이다(ⓑ). 또한 두 단어 모두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하지만 '나뭇가지'는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만 '나무껍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 ㉤의 1가지 조건에 해당한다.

<TIP>

이 문제는 한글 맞춤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에 결합된 단어가 모두 명사인지, 어종이 같은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14번 문법 이론: 음운 변동

1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가운데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가 위의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된다.

예) 부엌[부억], 한낮[한낟], 잎[입], 깎다[깍따], 낮잠[낟짬]

•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된다.

예) 낮이[나지]

2) 비음화: 끝소리가 파열음인 음절 뒤에 첫소리가 비음인 음절이 연결될 때, 앞 음절의 파열음이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 'ㄱ'은 비음 앞에서 [ㅇ]으로 발음된다.

예) 국물[궁물], 낚는다[낭는다], 부엌 문[부엉문]

• 'ㄷ'은 비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된다.

예) 닫는[단는], 겉모양[건모양]

• 'ㅂ'은 비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된다.

예) 밥물[밤물], 앞니[암니]

3) 유음화: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 음절의 끝소리 'ㄹ' 뒤에 음절의 첫소리 'ㄴ'이 올 때 'ㄴ'이 [ㄹ]로 발음된다.

예)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훑는[훌는 → 훌른]

• 음절의 끝소리 'ㄴ' 뒤에 음절의 첫소리 'ㄹ'이 오면 'ㄴ'이 [ㄹ]로 발음된다.

예) 신라[실라], 논리[놀리]

4)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 형태소 끝소리의 'ㄷ'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ㅈ]으로 발음된다.

예) 해돋이[해도지], 굳이[구지]

• 형태소 끝소리의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ㅊ]으로 발음된다.

예) 같이[가치], 밭이[바치]

5) 된소리되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 'ㄱ, ㄷ, ㅂ, ㅅ, ㅈ'은 'ㄱ, ㄷ, ㅂ'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입고[입꼬], 묻다[묻따], 국밥[국빱], 박사[박싸], 값지다[갑찌다]

• 용언이 활용할 때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어간의 끝소리 'ㄴ, ㅁ'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신고[신꼬], 넘다[넘따]

• 두 어절 이상이 연결되는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2 축약

1) 개념: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음운의 축약이라고 한다.

2) 종류

• 자음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자음 축약이라 한다.

예) 좋고 → [조코], 많다 → [만타], 업히다 → [어피다], 젖히다 → [저치다]

• 모음 'ㅣ'나 'ㅗ/ㅜ'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것도 축약이라 한다. 이때 모음 'ㅣ'나 'ㅗ/ㅜ'는 반모음으로 바뀐다.

예) 가리- + -어 → 가려, 두- + -었다 → 뒀다

3 탈락

1) 개념: 두 개의 자음이 이어지거나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둘 중 하나가 탈락되는 현상을 음운의 탈락이라고 한다.

2) 자음 탈락

• 자음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몇몇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된다.

예) 울- + -는 → 우는

• 자음 'ㅎ'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된다.

예) 좋아[조아], 쌓이다[싸이다]

• 음절의 끝소리에 자음 두 개가 오면 하나는 탈락되고 나머지 하나만 발음이 된다.

예) 닭[닥], 삶[삼], 밟고[밥꼬], 핥다[할따]

3) 모음 탈락

• 모음 'ㅡ'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

할 때 'ㅡ'가 탈락된다.
예) 쓰- + -어라 → 써라
• 모음 'ㅏ/ㅓ'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ㅓ'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ㅏ/ㅓ'가 탈락된다.
예) 가- + -아서 → 가서

④ 첨가
1) 개념: 두 형태소가 결합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첨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종류
•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뒤 형태소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예) 밤 + 길 → 밤길[밤낄], 초 + 불 → 촛불[초뿔/촏뿔]
•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ㄴ, ㅁ'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예) 코 + 날 → 콧날[콛날→콘날], 이 + 몸 → 잇몸[읻몸→인몸]
•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ㅣ'나 반모음 'ㅣˇ'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ㄴ'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예) 맨- + 입 → 맨입[맨닙], 한- + 여름 → 한여름[한녀름]

14. <답> ①
<정답률> 72%
<정답 및 오답 풀이>
㉠의 비표준 발음은 '긁는→글는→[글른]'의 과정을 거치고, ㉡의 표준 발음은 '짧네→짤네→[짤레]'의 과정을 거친다. ㉠의 비표준 발음과 ㉡의 표준 발음 모두 자음군 단순화 후 유음화가 나타난다. 반면 ㉠의 표준 발음은 '긁는→극는→[긍는]'의 과정을 거치고, ㉡의 비표준 발음은 '짧네→짭네→[짬네]'의 과정을 거친다. ㉠의 표준 발음과 ㉡의 비표준 발음은 모두 자음군 단순화 후 비음화가 나타난다. 한편 ㉢과 ㉣의 표준 발음은 모두 'ㅎ'이 'ㄱ, ㅈ'와 결합하여 각각 'ㅋ, ㅊ'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자음 축약)이 일어난 발음이다.
<TIP>
이 문제는 음운 변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의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이 어떤 음운 변동을 거쳐 발음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15번 문법 이론: 선어말 어미 '-더'
• 회상의 선어말 어미 '-더'
㈀ 말하는 이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할 때. 단, 주어가 말하는 이(1인칭) 자신일 때는 종결형에서 쓰이지 않음.
예) 그는 집에서 공부하더라.
나는 집에서 *공부하더라.

㈁ 관형사형에서는 '-던'으로 나타남(1인칭주어와 결합).
예) 그것은 제가 읽던 책입니다.
(동작의 지속 표시)

㈂ '-었-/-았-' + '더' : 경험 당시의 과거(과거 완료) 표시.
예) 용장이었던 충무공은 전사하고야 말았다.
(동작의 완결 표시)
아까 어떤 분이 찾아오셨더군요.

15. <답> ⑤
<정답률> 69%
<정답 풀이>
⑤는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아닌 ㉡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다음 주에 약속이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미래의 일에 해당하고,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①은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② (그의 합격이) 놀랍다는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에 해당하고, 주어가 1인칭인 평서문이기 때문에 ②는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③ 밉다는 본인(영수)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에 해당하고,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③은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④ 기쁘다는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에 해당하고, 주어가 1인칭인 수사 의문문이기 때문에 ④는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TIP>
이 문제는 시간 표현(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①~⑤의 주어와 문장 형태(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의문문이라면 수사 의문문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16~21] 독서-인문
[지문 분석]
17세기 초(이후 18세기, 19세기가 나옴. 통시적으로 대상에 대해 설명함.) 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19세기 후반부터는 서양 의학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보다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1문단: 17세기부터 조선에 유입된 서양 의학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이후에 나올 19세기 실학자 최한기와 비교해야 함.)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 주제군징(主制群徵) 』(서양 의학) 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 주제군징 』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주제군징』에 담기지 않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기독교적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음.)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주제군징』에 담긴 내용)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이익은 서양 의학을 부분적으로 수용함.)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

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아담 샬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하는 것은 뇌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익은 몸의 운동은 뇌가 주관하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고 주장함.)

2문단: 아담 샬의 인체관을 일부 수용한 이익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당시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미미했던 이유①)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당시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미미했던 이유②)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당시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미미했던 이유③)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당시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미미했던 이유④)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앞서 나온 18세기 실학자 이익과 비교해야 함.)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홉슨이 쓴 책의 내용)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3문단: 당시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미미했던 이유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 전체신론(全體新論) 』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최한기가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에 '몸기계'에 대해 생각한 것이 아님. 이전부터 해 온 생각이 저서를 통해 더 분명해진 것)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신체 운동의 원인)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기독교적 세계관, 기계적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최한기는 '신기'를 통해 기계적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봄.)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4문단: 홉슨과 최한기의 기계론적 인체관

최한기는 『 전체신론 』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것이 뇌라는 것에는 동의함. 이익의 입장과 같음.)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홉슨은 신체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하는 것은 뇌라고 생각함. 아담 샬의 입장과 같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 전체신론 』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5문단: 지각 활동을 주관하는 주체에 대한 홉슨과 최한기의 입장 차이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심장이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이익의 견해)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최한기가 생각한 '신기'의 개념)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눈과 귀와 같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눈과 귀와 같은 감각 기관을 통해 보고 들은 것)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신기는 구분할 수 없음.)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6문단: 심주지각설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최한기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7문단: 최한기의 인체관이 조선 사상사에서 갖는 의의

• 주제: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

[지문 확인]

1문단: 17세기부터 조선에 유입된 서양 의학

• 17세기 초 조선에 서양의 과학지식이 유입되었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했음.

2문단: 아담 샬의 인체관을 일부 수용한 이익

•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을 일부 수용함.
• 『주제군징』은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의 내용을 담음.(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겨 있지 않음.)
• 아담 샬과 이익의 인체관

	몸의 운동	지각 활동
아담 샬	뇌가 주관	뇌가 주관
이익(전통적인 심주지각설)	뇌가 주관	심장이 주관

3문단: 당시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미미했던 이유

• 당시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미미했던 이유
① 당시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이 내용 면에서 부족했음.
②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은 내용이었음.
③ 서양 의학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했음.
④ 조정이 서학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음.
• 19세기 실학자 최한기가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함.

4문단: 홉슨과 최한기의 기계론적 인체관

• 최한기는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몸기계)로 파악했으며, 이러한 생각이 홉슨의 『전체신론』을 읽고 더 분명해짐.
• 기계적 신체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고,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원인으로 규정하였음.

5문단: 지각 활동을 주관하는 주체에 대한 홉슨과 최한기의 입장 차이

• 홉슨과 최한기의 인체관

	몸의 운동	지각 활동
홉슨(뇌주지각설)=아담 샬	뇌가 주관	뇌가 주관
최한기(주체적으로 수용한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이익	뇌가 주관	심(심기)이 주관

6문단: 심주지각설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최한기

• 심주지각설에 대한 이익과 최한기의 견해
– 이익: 심장이 지각 활동을 주관함.
– 최한기: 심기가 지각 활동을 주관함.
•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
• 신기는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 들여 기억하고 저장함.
• 신기는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서 감각을 통합할 수 있음.

7문단: 최한기의 인체관이 조선 사상사에서 갖는 의의

•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임.
•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고 평가할 수 있음.

16. <답> ②
<정답률> 82%
<정답 풀이>
이 글은 17세기 서양 의학이 조선에 유입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18세기 조선 실학자 이익과 19세기 조선 실학자 최한기의 인체관을 설명하고 있다. 선지 ②의 내용은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이다. 2문단의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와 7문단의 '최한기는 ~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를 통해 조선 시대 학자들이 서학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체관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조선의 인체관과 서양의 인체관을 비교·대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선의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은 나타나 있지만,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이익과 최한기 모두 심주지각설을 주장하였지만, 이익은 '심'을 '심장'으로 최한기는 '심'을 '신기'로 보았다. 이 점을 통해 이익의 인체관과 최한기의 인체관이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익과 최한기의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동양의 지식인(이익, 최한기)이 서양의 지식인(아담 샬, 홉슨)에게 영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서양의 지식인은 동양의 지식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선지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
<TIP>
이 문제는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지문을 읽을 때는 주제와 함께 내용 전개 방식이 비교-대조, 원인-결과, 문제-해결, 개념-부연 중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지문의 경우 지문을 읽을 때, 17세기, 18세기, 19세기라는 단어를 보고 이 글은 대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17. <답> ④
<정답률> 75%
<정답 풀이>
선지 ④의 내용은 '아담 샬과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이다. 2문단의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와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다.'를 통해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에는 기계론적 의학 이론이 담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문단의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과 4문단의 '기계론적 인과 관계' 등을 통해 홉슨이 쓴 『전체신론』에는 기계론적 의학 이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한 것은 '아담 샬과 홉슨'이 아니라 '홉슨'이기 때문에 선지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4문단의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를 통해 최한기가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

수하였다.'를 통해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의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과 5문단의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을 통해 이익과 홉슨은 모두 신체의 동작(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의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을 통해 『주제군징』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문단의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5문단의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을 통해 『전체신론』은 인체의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창조주의 존재를 상정하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제군징』과 『전체신론』 모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세부 정보와 핵심 정보를 묻는 문제이다. 선지의 핵심 단어를 파악하여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선지 내용의 근거가 되는 문장(근거 문장)을 지문에서 찾아 밑줄을 치고 선지의 내용과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또한 선지 ③의 경우처럼 지문에 나온 단어와 선지에 사용된 단어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선지 ③의 '신체의 동작'을 보고 지문에서 '신체의 동작'이라는 단어만 찾으려 했다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문에서는 '신체의 동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이와 비슷한 의미인 '(몸의) 동작'이라고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문에 나온 단어와 선지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18. <답> ③
<정답률> 80%
<정답 풀이>
㉠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했던 이유는 3문단에 나타나 있다. 3문단에서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의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를 통해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음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의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를 통해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면에서 불충분했'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의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를 통해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를 통해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세부 내용을 추론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단순히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 미미하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19세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야 한다.

19. <답> ③
<정답률> 74%
<정답 풀이>
ㄴ. 6문단의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 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다.'를 통해 '귀에 쏠린 신기'는 청각, '눈에 쏠린 신기'는 시각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보고 들음)를 받아들이며, 이것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은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ㄷ. 6문단의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를 통해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ㄷ의 내용은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심장'이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내용은 인간의 지각이 심장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으로 심주지각설을 고수한 이익의 견해에 해당한다. 최한기는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심장이 아닌 신기에 의해 인간의 지각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ㄹ. '신기'가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6문단의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를 통해 '신기'를 '한 몸에서 퍼지는 신기'와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주어진 <보기>를 바탕으로 인과 관계와 상관관계를 추론해야 하는 문제이다. 18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문에 나온 단어와 선지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ㄱ의 '귀'와 '눈'은 지문의 '감각 기관'에, '보고 들음'은 지문의 '외부 세계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ㄹ이 구분의 방식으로 '신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지문에서 설명한 '신기'와 대비되는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20. <답> ②
<정답률> 60%
<정답 풀이>
5문단을 통해 최한기는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신기'가 지각 운용을 주관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최한기가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을 '두뇌'로 보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데카르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라고 보았는데, 이는 인간의 사고 작용이 두뇌에서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6문단의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를 통해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의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을 통해 데카르트의 '정신'은 신체와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③ 6문단의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를 통해 최한기의 '신기'는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의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를 통해 데카르트의 '정신'도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를 통해 데카르트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사유)와 신체(감각 기관)가 영향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데카르트가 받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4문단의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를 통해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의 견해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TIP>

이 문제는 외적 준거를 통해 비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데카르트의 견해를 지문의 최한기와 비교하며 파악해야 하며, 선지 내용의 근거가 되는 문장(근거 문장)을 지문과 <보기> 모두에서 찾아 선지의 내용과 꼼꼼하게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다. 선지 내용에 근거가 되는 문장이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근거 문장을 잘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본 해설 자료는 홍보용으로 공유되는 자료로서, 20번까지만 제공됩니다. 21번부터는 나무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아카데미의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할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모든 불법 게시물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캡처되고 있습니다.

등급컷

등급	원점수
1	91
2	84
3	75
4	64
5	51
6	38
7	26
8	20